

동명대, 세계선센터 건립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세계선센터 건립 등 한국 불교의 세계적 진흥을 위해 동명대(총장 설동근)의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이사장 서의택)에 2억원을 쾌척했다.

8월 12일 대학본부경영관 307호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세계선센터 건립 등으로 향후 불교문화의 중흥과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선도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이로 인해 동명대의 위상과 불교문화학회가 지금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학협력선도대학 최우수,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중심평생학습활성화사업 등 3가지 대형 국가사업 선정으로 100여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확보한 동명대의 설동근 총장은 "수진 스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동명대 불교문화학과가 한국불교의 글로벌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설총장은 "동명대와 인연이 맺어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공간, 부산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선체형 공간, 명상 힐링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개원을 앞둔 세계선센터는 동명관 4층 661㎡(200평) 규모로 조성되며, 선수련실 430㎡(130평), 선원장실 83㎡(25평), 다도실 66.1㎡(20평), 탈의실 등 기타 49.5㎡(15평) 등이다. 현재 리모



동명대가 세계선센터 건립에 나섰다. 사진은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8월 12일 세계선센터 건립을 위해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이사장 서의택)에 2억원을 기부한 장면.

리모델링 거쳐 8월말 완공 예정 유학생에게 한국문화 체험도 제공 해인정사 주지 스님 2억원 쾌척

텔링 공사 중으로 8월말 완공예정이다. 선원장에는 현재 수진 스님이 내정되었으며, 총장직속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학교측은 밝혔다.

센터장을 맡게 될 수진 스님은 "동명대는 불교도시 부산에서 유일하게 불교문화

학과가 있고, 이번에 조성되는 세계선센터는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젊은 시절 접한 불교는 평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기에 캠퍼스를 통해 동명대와 인연 있는 전세계의 학생, 교수, 종교지도자들이 한국불교를 배우게 되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동명대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지난 1960·70년대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화, 근대화 등을 주도한 부산의 옛 세계적 향토기업 동명목재 故 '東明' 강석진 회장(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설립자)의 유훈이 서린 학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2013년 삼국유사 문화축제 개막

8월 14일 인각사 다례제로 막을라

삼국유사를 저술한 보국각사 일연 스님을 기리고 삼국유사의 역사적 중요성을 되새기는 '2013 일연 삼국유사 문화축제'가 8월 14일 다례제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행사는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저술한 경북 군위 인각사 경내 국사전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은혜사 주지 둔관 스님을 비롯 장육 군위군수와 군위군 기관장 등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다례제는 인각사 신도회에서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법고, 종사연반, 봉행사, 법어 등의 순으로 2시간 여 동안 엄숙히 진행됐다.

이날 인각사는 다례제에 앞서 지난 2004년 해제 보수에 들어갔던 극락전 복원식을 갖고, 류영희, 강순영 서예전도 인각사 일연 절리리에서 오프닝을 가졌다.



삼국유사 문화축제 다례제

'일연 삼국유사 문화축제'는 오는 8월 24일 군위 삼국유사 교 육문화관에서 '삼국유사 골든벨 대회'와 10월 12일 군위법 일원에서 '군위 삼국유사 마라톤대회'도 펼쳐진다.

손순철 대구지사장

구미 원각사 부처님 점안법회

구미 원각사 주지 대혜 스님은 8월 1일 삼존불 부처님 개안점안 법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과 구미시 관계기관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점안식은 직지사 종명 스님, 지정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의 법회 장면

법사로 초대된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대중에게 '삼국유사의 일화'를 이야기 한 뒤 "새롭게 모셔진 부처님의 신령한 영험은 각자가 신심을 모아 부처님을 공경하고, 자신의 진정한 소원과 행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도 신심을 갖고 열심히 기도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각사는 수행교육 실천 도량으로 지역 곳곳에 봉사활동도 앞장 서고 있다. 손순철 대구지사장

러시아 대학생 불교문화체험

부산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는 8월 10일 러시아 모스크바 6개 대학 대학생들을 초청, 불교문화와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들은 부산동명대에 한 달 과정으로 한국어연수를 온 유학생들로 하루 종일 사찰에 머물며 불교와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림사 불교문화체험

성타 스님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지만 낯선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에 아주 흡족해 했다."며 "참선, 다도, 염주만들기, 선화그리기, 도전 백팔배, 천연염색, 요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늦은 시간까지 한국문화와 불교를 이해하고 즐기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동림사는 이를 계기로 외국인 포교활동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것을 다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계단·난간 조화, 안전성 고려를

우리나라 사찰은 산지에 지어진 관계로 건물과 마당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여러 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아랫단 일주문이 있는 공간으로부터 맨 윗단 대웅전이 자리잡고 있는 공간까지 올라가려면 단과 단을 연결한 여러 개의 계단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한 까닭인가? 우리나라 사찰에서 석단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계단은 매우 중요한 경관요소로 작용한다.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를 보면, 계단 좌우에 석주를 세우고 그것을 돌로 깎아 만든 난간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 난간은 계단의 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지력을 제공하고 독창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측면

에서 우리들을 감동시키지만 그 당시에 이미 사찰을 찾는 불자들이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는 측면에서 다른 계단들과는 차별화되는 그 무엇이 있다.

오래 전에 만든 산지사찰을 가보면 하나같이 화강석을 다듬은 장대석 계단돌을 놓거나 울퉁불퉁하게 생긴 자연석을 놓아 계단을 만들고 있으나, 좌우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경우 아래윗단의 레벨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레벨차가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나이가 들어 힘이 없거나, 나이가 어려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불자들에게는 이러한 계단이라면 마음놓고 이용하기가 겁

이 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산지사찰에서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돌을 깎아 만든 계단에 나무나 철로 만든 난간을 설치하거나 심지어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봉으로 난간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들이 돌로 만든 계단과 조화를 이루기는 어려운 일어서서 사찰경관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다.

계단이 많은 산지사찰에서 계단의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불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나라라도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짙어 오는 불자들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다. 이러한 노인인구와 약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일야말로 절고, 건강한 사람들이 해야 할 보살행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고급의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단돌과의 조화도 필요하다. 경북 부산사찰

반야동자(12절)
3,000부 이상 @ **800** 원
2,000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우리도 연꽃같이(한지)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since 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행복한하루(탁상)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나를 다스리는 말
선(수첩)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 : 18장

반야동자(12절)
3,000부 이상 @ **800** 원
2,000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우리도 연꽃같이(한지)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향기로운 꽃(미니)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
• 규격 : 8.9cm × 9.5cm
• 매수 : 16장